

2024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4. 01



양구군의회

목 차

I . 공무국외출장 개요	
가. 출장일정1
나. 출장자 명단3
다. 출장 국가 현황4
II . 주요 방문 내용	
가. 괴레메 시의회 방문6
나. 카파도키아 관광청 방문7
다. 그랜드 바자르 상인회 방문8
라. 견학지역9
III . 착안사항18
IV . 총평22

I. 공무국외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24.01.06.(토) ~ 2024.01.14.(일)
- 출장지역 : 튀르키예
- 출장목적
 - 튀르키예의 의회 구성 및 운영과 의정활동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적 시스템, 각종 정책, 시책등을 비교하여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접목하고자 함.
 - 넓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의 문화유산들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현장시찰을 통해 우리군에 적용하고자 함.
 - 작은 재래시장에서 이스탄불 최대의 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게 된 정책에 대하여 현장시찰을 통해 적용하고자 함.

가. 출장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출 장 일 정
제1일 1/6 (토)	인 천	개별집결 0Z551 (아시아나항공)	06:30	인천국제공항 1청사 3층 집결 후 출국수속
			09:35	인천 출발/이스탄불 향발 (약 12시간 5분소요)
			15:40	이스탄불 도착 후 입국 수속 H HOTEL : 5성급 호텔 (예정)
제2일 1/7 (일)	이스탄불 카이세리	전용차량 TK2014 (터키항공)	08:00	호텔 조식
			09:00	▶ 유적지 관리실태 현장 견학 공항으로 이동
			16:10	이스탄불 출발 / 카이세리 향발 (약 1시간 20분 소요)
			17:40	카이세리 도착 석식 및 호텔투숙 H HOTEL : 5성급 호텔 (예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출장일정
제3일 1/8 (월)	카파도키아	전용차량	07:00 10:00 12:30 13:00 18:00	<p>호텔 조식</p> <p>GOREME Belediyesi (괴레메 시의회) ADD : Aydın lı Orta Mah. Adnan Menderes Cd. No:2, 50180 Göreme/Nevşehir, TURKEY TEL : +90 384 271 20 01</p> <p>도중 중식</p> <p>▶ 카파도키아 역사지구 현장 견학</p> <p>석식 후 호텔투숙</p> <p>H HOTEL : 5성급 호텔 (예정)</p>
제4일 1/9 (화)	카파도키아 콘야	전용차량	07:00 10:00 12:00 13:00 18:00	<p>호텔 조식</p> <p>카파도키아 관광인프라 서비스 협회 ADD : Rag ıp Üner Mahallesi Zübeyde Han ım Caddesi PK:50300 TEL : +90 384 215 1011</p> <p>중식</p> <p>콘야로 이동 (약 3시간 30분 소요)</p> <p>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p> <p>H HOTEL : 5성급 호텔 (예정)</p>
제5일 1/10 (수)	콘야 파묵갈레	전용차량	07:00 08:00 12:00 13:00	<p>호텔 조식</p> <p>파묵갈레로 이동 (약 4시간 소요)</p> <p>중식</p> <p>▶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리실태 현장견학</p> <p>석식 및 호텔 투숙</p> <p>H HOTEL : 5성급 호텔 (예정)</p>
제6일 1/11 (목)	파묵갈레 주말르크크족 부르사	전용차량	07:00 08:00 14:00 15:00 17:00 17:20 18:30	<p>호텔 조식</p> <p>주말르크크족으로 이동 (약 6시간 소요)</p> <p>중식</p> <p>▶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오스만 제국 시대의 전원 마을인 주말르크크족 마을 견학</p> <p>부르사로 이동(약 20분 소요)</p> <p>▶ 부르사 재래시장 견학</p> <p>호텔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p> <p>H HOTEL : 5성급 호텔 (예정)</p>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출 장 일 정
제7일 1/12 (금)	부르사 이stanbul	전용차량	07:00 08:00 10:00 18:00	<p>호텔 조식</p> <p>이stanbul로 이동 (약 2시간 소요)</p> <p>▶ 이stanbul 도착 후 재래시장 현장 견학</p> <p>그랜드 바자르 상인회 방문</p> <p>ADR : Beyazıt, 34126 Fatih/Istanbul, 터키</p> <p>TEL : +90 212 519 12 48</p> <p>석식 및 호텔투숙</p> <p>H HOTEL : 5성급 호텔 (예정)</p>
제8일 1/13 (토)	이stanbul	전용차량 0Z552 (아시아나항공)	07:00 09:00 14:00 17:30	<p>호텔 조식</p> <p>▶ 연수 자료 정리</p> <p>중식</p> <p>공항으로 이동 후 출국수속</p> <p>이stanbul 출발 / 인천 향발 (약 9시간 40분 소요)</p> <p>H HOTEL : 기내숙박</p>
제9일 1/14 (일)	인 천		09:35	<p>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p> <p>연수종료 및 해산</p>

나. 연수자 명단

○ 14개 시군 / 32명(남 25, 여 7)

연번	소 속	성 명	직급(위)	성별	비 고
1	양구군의회	조돈준	의 장	남	
2	”	권석경	주무관	남	

다. 출장 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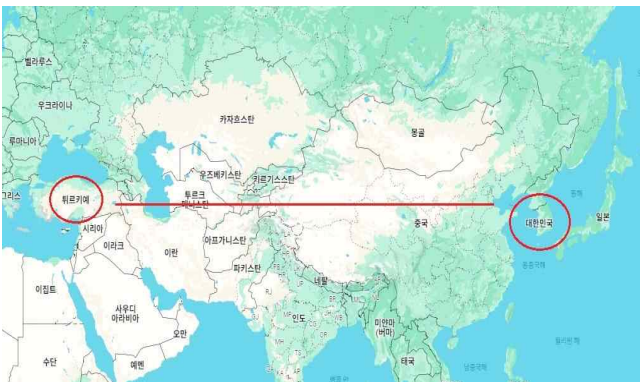
수 도 : 앙카라(Ankara, 260만명)
 인 구 : 8,626만417명 세계18위(2023년 통계청)
 면 적 : 7,853만5800km² 세계36위(2021 국토교통부)
 주요도시 : 이스탄불, 이즈밀, 콘야
 주요민족 : 터어키(90%), 쿠르드 및 아랍(10%)
 주요언어 : 튀르키예어(90%), 쿠르드어 및 아랍어(10%)
 종 교 : 이슬람교(99%), 기독교, 유대교등

○ 지리

유럽 대륙(3%)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토의 총면적은 7,853만 5,800km²로 에게해, 지중해, 마르마라해, 흑해를 접하고 있다. 보스포루스 해협,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경계로 아시아지역인 아나톨리아와 유럽지역인 트라케로 나뉘어진다.

위치에 따라 마르마라해 지방, 흑해 지방, 에게해 지방, 지중해 지방, 동부 아나톨리아 지방, 남동 아나톨리아 지방, 내부 아나톨리아 지방의 7개 지역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한다.

○ 기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적도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지중해 연안 지방의 전형적인 온난성 기후대(60%)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고도차로 인한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흑해 연안부의 따뜻한 기후, 고산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와 설

경을 접할 수 있다. 흑해, 지중해, 에게해 등의 바다와 인접하였기에 풍부한 수자원을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국토 대부분이 석회질이 많고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 호수여서 식수로서의 사용을 못한다.

○ 종교

튀르키예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이며 아르메니아, 유대교, 개톨릭, 그리스 정교 등이 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이며 주변의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종교적으로 다소 자유로운 편이고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중요시 된다.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 주말을 공휴일로 하는 등 서구화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풍속

튀르키예는 종교 공휴일로서 쉐케르 바이람과 쿠르반 바이람이 있으며, 매년 날짜가 다르다. 바이람 전 한달동안은 라마단으로 일출부터 일몰시간까지 금식하는데 가장 큰 종교 축제인 바이람 기간중에는 새 옷을 입고 친척집을 방문 한다. 친족과 가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 자원



이즈미르 지역의 지열발전소의 발전 모습

튀르키예는 철광석과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철강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석유는 수입에 의존한다. 석탄이 풍부하여 현재까지도 개인집에서 갈탄을 이용한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어 중심도시에서 벗어날수록 특유의 냄새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단층구조가 발달되어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온천, 지열발전소가 발달되어 있고 넓은 평지에는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어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고 있다.

II. 주요 방문 내용

가. 괴레메시의회(기관) 방문

▷ 방문개요

- 일시 : 2024.01.08(월). 11:00
- 장소 : 카파도키아 괴레메시청 회의실
- 인원 : 괴레메시장 및 14개 시군의장단
- 주제 : 괴레메시의 관광정책과 운영사례



2024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인정협의회 국외인

▷ 면담내용

질문 괴레메시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

답변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작은 소도시로 2천명정도가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4,0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질문 환경이 배수가 잘되는 토질인데 상수원의 공급방법 설명 부탁

답변 석회성분이 많아 먹는 물은 구입해서 해결하고 그 외는 대부분 지하수이며, 9km 떨어진 강에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음.

질문 괴레메시의 시의회 구성 현황 설명 부탁

답변 시의회 의원수는 9명으로 시장이 의장을 대행하며 투표를 할 경우 의원1표, 시장2표 갖고 결정함.

질문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인데 치안문제에 대처방법 설명 부탁

답변 작은 도시로 인해 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정보교류가 빠르며 비밀경찰과 군인이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음.

질문 세계적인 관광지역으로서 홍보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

답변 세계관광박람회를 통해 홍보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한 관광객들이 올리는 효과로도 충분하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카파도키아에서 처음으로 도

시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나. 카파도키아 관광청(기관) 방문

▷ 방문개요

- 일시 : 2024.01.09.(화). 11:00
- 장소 : 카파도키아 관광청 대회의실
- 인원 : 관광청장 및 관계자, 14개 시군의장단
- 주제 : 카파도키아의 관광정책과 운영사례



▷ 면담내용

질문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관광종사자의 현황 질의

답변 활동중인 관광가이드는 16,000명정도임.

질문 관광산업에 대한 홍보 방법과 예산에 질의

답변 인터넷, 박람회, 여행사등을 통해 홍보하며 홍보비용은 부서별 분야가 틀려 예산의 총액은 산출하기가 어려움.

질문 열기구 관광상품의 운영방침에 대한 질의

답변 열기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통제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년 교육이수 및 자격제한으로 관리하고 있음.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일 기상에 따라 시에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

질문 열기구를 우리도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지역여건과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필수적임.

질문 넓은 관광지역에 비해 편의시설이 미비한데 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 편의시설은 있으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이라 제한이 있고 개인소유의 시설은 무료화 하기가 힘든 실정임.

질문 앞으로의 관광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 넓은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과 온천관광, 스키장 시설을 확대할 계획임.



다. 그랜드바자르 상인회 방문

▷ 방문개요

- 일시 : 2024.01.12.(금). 11:00
- 장소 : 그랜드바자르 상인회장 사무실
- 인원 : 상인회장 및 14개 시군의장단
- 주제 : 재래시장 운영방법 및 성공 사례청취

▷ 면담내용

질문 그랜드바자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질의

답변 청결한 시장환경과 진열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매장번호 및 체계적인 상점구역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하였음.

질문 우리나라는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곳의 비결은

답변 이곳은 최대 관광명소이자 교통의 중심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질문 시장내에 유명상품의 이미테이션 상품을 취급하는데 상인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방법에 질의

답변 이이미테이션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현재 상인회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없음.

질문 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들이 흥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질의

답변 여러 상점내에 비치된 물품은 똑같은 상품이 많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흥정을 통해 구입하는 것 또한 즐길거리중의 하나라 여김.



라. 견학지역

이스탄불(도시안내)

2일차 아시아 경계가 되는 모스몰스 해협에 위치한 이스탄불은 오래된 역사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동·서양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통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세계를 지배한 3대 강국인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 과거의 흔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도시로서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다.

▷아흐메드 모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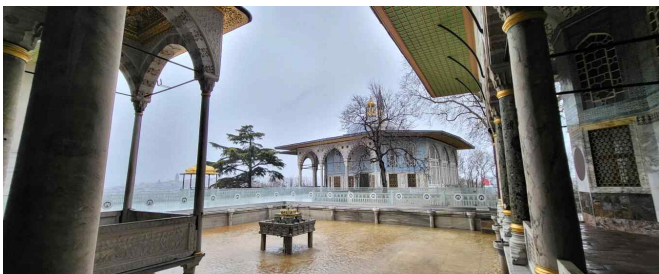


튀르키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오스만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지시에 의해 건축가 시잔의 제자인 메흐메트 아아가 1609년 착공을 시작해 1616년

완공했다. 아야소피아 성당의 건축 양식을 모방했고 내부는 푸른색과 흰색의 이즈니크 타일로 꾸며졌으며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햇빛이 들어오게 설계한게 특징이다. ‘술탄 아흐메트 1세 사원’이라는 말보다 푸른색 타일 덕분에 ‘블루모스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슬람 신자들이 성지 순례 시 출발지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원이다.



▷톱카프 궁전



보스포라스 해협의 높고 평평한 곳에 위치한 70만㎡에 이르는 톱카프 궁전은 1453년, 오토만 제국의 술탄인 메흐멧이 이스탄불을 차지하게 되면서 처음 건설되어 약400년간 꾸준히 그

규모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 결과 오늘날 이곳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오투만 건축양식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건축, 설계 위주로 관람해도 좋다.

원래 오투만 제국 대대로 술탄 군왕들이 거처했던 성으로 한때 이곳에는 술탄과 그 가족 외에도 5만명이 넘는 시종들과 군사, 관료들이 거주했었다고 한다.

입장시 보안검사를 받은 후에 관람이 가능하다.



▷카파도키아(도시설명)



벽돌생산 현장

수백만년전 예르지에스산 등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인해 형성된 곳으로 오랜 세월 에 걸쳐 풍화, 침식을 통해 지형이 생겨났다. 이곳에는 덥고 건조한 기후를 피해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주 공간이 많으며 '데린구유'라 불리는 지하도시가 유명하다. 종교탄압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의 훌륭한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3일차

이 곳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응회암은 쉽게 깎이는 탓에 돌로 만든 집이 많다. 지하도시의 거주민처럼 버섯기둥에 거주하던 주민들도 교회, 사원, 생활공간등을 만들었다. 오늘날까지도 카파도키아에는 6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보존되어 있다.



주거공간의 벽돌 모습

▷데린구유 지하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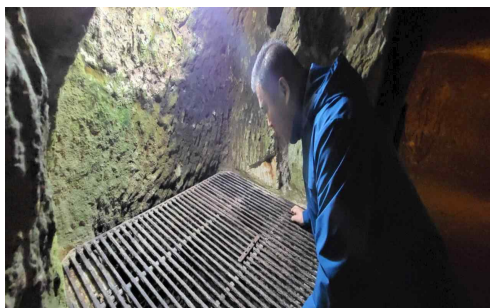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깊이 85m의 지하도시로 2만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 침실, 부엌, 창고, 가축우리 등의 생활 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종교적 갈등을 통한 피난민의 유입으로 긴급할 경우 다른지역으로도 피할수 있는 복잡한 미로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데린구유는 '깊은 무물'이라는 뜻인데, 땅속 깊이 구멍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했다. 구멍을 통해서 각 층에 물을 공급했으며, 이 구멍은 환기구 역할도 했다고 전해진다.

데린구유는 '깊은 무물'이라는 뜻인데, 땅속 깊이 구멍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했다. 구멍을 통해서 각 층에 물을 공급했으며, 이 구멍은 환기구 역할도 했다고 전해진다.



▷우치히사르(비둘기계곡)



괴레메 동굴로부터 3Km 떨어진 곳으로 1,3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있는 바위산이다. 과거 온통 응회암으로 뒤덮여 있었던 이곳에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터널을 만들어 살았으며 오늘날과 같은 별집모양의 바위산이 만들어 졌다.

바다였던 곳이 융기하여 이루어진 곳에 다시 화산 활동을 통해 그 위에 화산 재들이 덮여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비바람과 부식작용으로 마모되고 부서져 약한 부분은 모두 깎여 나가고 가장 단단한 암석들만 남아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현재 바위들에는 수없이 뚫려 있는 공간들을 볼 수 있다.

▷괴레메 마을



앙카라에서 네비쉬르를 거쳐 가다보면 괴레메라고 불리는 카파도키아의 마을이 나온다. 넓은 지역이기에 경관을 도로나 인접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명소이다. 넓은 주변경관에 비하여 편의 시설이 없는게 아쉽다.

▷파샤바 계곡

괴레메와 아바노스의 중간에 위치하며 에르지에스 화산이 폭발로 인해 많은 화산재와 분출물이 흘러나와 상층과 하층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암석층으로 쌓이고 그후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의 풍화작용, 빗물, 강물의 침식작용등으로 지층을 깎이면서 생겨난 버섯 모양의 기암괴석이다.



과거 응회암을 깎아 사용한 생활거주지와 예배당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스머프 마을, 요정의 굴뚝으로도 불린다.



이곳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버섯처럼 생긴 세 개의 바위 봉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낙타바위이다.

파묵갈레(도시안내)

파묵갈레는 석회층으로 인해 만들어진 경관과 넓은 지역에 형성되었던 고대도시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파묵갈레의 석회층은 자연이 만들어 낸 경이로운 산물로, 상부지역에서 흘러 나온 석회 성분을 포함한 물이 오랜 시간동안 점차적으로 쌓여서 오늘날의 광활하고 회귀한 경관을 만들어 냈다. 딱딱해진 광활한 석회층의 패인 곳에 상부쪽에서 흘러내려온 온천수가 담겨 야외 온천장을 형성하였다. 멀리서 파묵갈레 석회층을 보면 목화를 뭉쳐놓은 듯하여 '파묵갈레'라는 지명이 생겼으며 터키어로 '목화의 성'이라 불리고 있다.

5일차

▷ 목화의 성



온천수 체험 모습

히에라폴리스 동쪽 끝의 급경사면에 위치하며 석회봉은 석회를 함유한 물이 솟아 암석 표면을 흐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침전되고 응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암석화된 것이다. 그 위에 계속 침전이 진행되어 마치 계단 모양의 석회봉이 형성되었다. 매년 1mm 정도씩 증가한다고 하며 대략 1만 4천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산지대 계단식 벼농경지처럼 형성된 지형에는 미온의 온천수가 고여 있어 크고 작은 풀장들이 모여 있는 느낌을 준다. 파묵칼레의 온천수에는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다량 함유되어 심장병, 순환기 질병,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1997년부터 석회층 보호와 온천수의 감소로 발을 담그는 선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히에라폴리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히에라폴리스는 기원전 190년에 페르가몬의 왕조였던 유메네스 2세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대도시였던 이곳은 빈번한 지진으로 인하여 과거의 흔적들만이 유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원형극장만이 현재 복원된 이곳은 1988년 유네스코

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주위 경관과 어루러진 모습이 환상적이다.

6일차

▷부르사(도시안내)

튀르키예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 규모를 자랑하며, 오스만 1세와 오르한 1세의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온천수가 나오는 도시로도 유명해서 온천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많다.

▷톱하네시계탑



톱하네 공원내에 있는 6층 시계탑으로, 19세기 오스만 제국 32대 술탄 압뮐라지즈 1세 때 만들어졌다가 1905년에 다시 지어져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에는 화재를 감시하기 위한 소방용 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톱하네 공원은 오스만 제국의 초대 술탄인 오스만 가지(오스만 1세)와 그의 아들이자 2대 술탄인 오르한 가지(오르한 1세)의 묘가 있는 곳이다.

높은 지대에 있어 공원에서 빨간 지붕의 건물이 어우러진 도시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울루자미



1421년 술탄 메흐멧 1세 때 완공되었다. 외관에서 보는 크기에 비해 내부가 여러개의 작은 공간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내부에는 코란을 읽는 설교대와 분수대가 있으며 벽면에는 코란이 적혀 있다.

편안한 기도를 위해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고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한다. 예배시간대에는 관람객들은 출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 그랜드바자르



그랜드바자르는 길을 따라 골목에 형성된 전통 시장에서 출발하여 이스탄불의 최대 시장으로 거듭난 시장이다. 지진과 화재로 증·개축을 거치고 골목과 골목사이의 공간에 지붕을 덮어 체계적인 시장으로 발전했다. 구획별로 조성된 상점에는 고유 번호가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는 5천개가 넘는 상점이 있으며 금은방, 보석상점, 양탄자, 도자기, 가죽제품상점 등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시장으로 접근할수 있는 입구는 많이 있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입구에는 보안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 성소피아 성당



이스탄불 역사지구내에 있는 술탄 아흐메드 1세 자미와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로 붉은색 벽돌로 외벽을 쌓아 올려졌다. 초기에는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이자 황제의 의식이 치러지는 중요한 장소였던 이 성당은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회교사원으로 용도가 바뀌어졌으며 성당내에 있던 종, 제단 등은 제거되었다고 한다. 벽면과 돔에 장식되었던 모자이크화는 회반죽으로 덮혀지고 그 위에 이슬람의 상징물로 바뀌었다.



색유리와 돌로 만들어진 모자이크화는 현재 복원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었는데 예술적 감각, 역사적 배경, 종교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들마바흐체 궁전



보스포러스 해협을 옆에 끼고 있는 궁전으로 입구에서 들어가면 넓은 조경광장이 보이며 그 뒤로 궁전이 보인다.

궁전에 들어가면 44개의 홀과 285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되며 접견실에는 56개의 기둥과 750개의 전등이 달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4.5톤의 샹들리에를 볼수 있다.



이 궁전은 초대 대통령인 아타튀르크가 업무 도중 1938년 11월 10일 숨을 거둔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궁전 안에 있는 시계는 아타튀르크가 사망한 9시 5분에 멈춰져 있다.

궁전안에는 사진촬영이 안되며 들어가기 전에 신발에 비닐커버를 씌우고 입장해야 한다. 이는 내부시설 및 유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Ⅲ. 착안사항

튀르키예는 넓은 국토의 면적에 수많은 역사적 유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

▷ 농업분야



수확된 목축용 조사료

튀르키예는 넓은 평야지역이 많아 기후에 맞는 올리브유, 포도, 사탕수수, 목축용조사료를 통한 목축업등 대단위 농장형 농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변국가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인한 대규모 농산물이 생산되어 유통, 가공등을 통한 수출과 제조산업이 활성화되었다.



대단위 농경지

착안 우리군은 경작토지 면적과 지형, 기후등에서 볼때 벼농사에서 사과, 수박, 메론, 시레기, 인삼 등의 특수작목으로 점차 농업작물이 변화되고 있다. 벼농사에서 벗어나 고소득작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국내소비용 농업작물의 재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통한 인력난에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노동력 의존도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도농장

따라서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예시설 농업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계화 농업시스템들을 견학 및 도입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했으면 한다.



시설재배 포도농장

▷ 관광분야



열기구투어 모습



사바리 체험 대여소

튀르키예는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부각되었다. 광활한 자연풍경과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 건물등이 아직도 개발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교시설, 석회석지대, 온천, 크리스탈, 도자기, 카페트 등의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지는 좋은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그중 지역내에서 숙박 후 새벽시간에 이용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인 별룬(열기구)투어와 넓은 평야 지역을 달릴수 있는 사발이 체험과 같은 특색있는 상품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은 관광시설 입장료, 사용료등을 통해 확보되고 있으며 재원을 재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유입되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착안 우리군은 지리적 위치, 열악한 자원등을 고려하여 가지고 있는 자원인



양구백토 예술인촌 분양지



박수근미술관 예술인촌 분양지 주변모습

박수근, 국토의중심, 양구백토등을 중점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관광분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 본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미술관, 박물관, 관광시설들은 대부분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연계된 관광상품이나 프로그램이 전혀없고 식당이나 특색있는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광지와 연계된 지역스토리텔링을 적극 검토하여 체류관광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분양이 저조한 미술관, 박물관에서 추진되어지는 예술인마을과의 연계된 스토리를 개발해 보는 것도 하나의 예라 여긴다.

▷재래시장



체계적인 시장구획 모습

이stanbul의 그랜드 바자르는 골목길과 연결된 지붕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진 재래시장이다. 체계적인 상가 구획정리와 건물관리를 통해 볼거리와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와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잘 만들어져 있다.



재래시장 모습

착안 우리군의 재래시장은 과거 주차장이 없어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완비하였고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활성화 측면에서는 미비하다. 현재 오래된 건물도 문제이지만 정리되어지지 않은 집기와 상품들이 내·외에 정리되어지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들이 이용시 원하는 상점과 위치를 쉽게 찾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랜드바자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점 번호와 같이 시장내의 안내판 및 상점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고 비슷한 상점이나 식당들을 이동배치하여 구획간의 동질성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도시계획

튀르키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과 자연환경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에 한계에 있다고 한다.

과거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도시가 확장되었기에 구도시의 도로나 옛날 가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하나의 볼거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증가는 대형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협소한 도로폭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한다.

착안 우리군은 작은농촌도시로서 오래된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생활편의를 위한 불량가옥철거, 지붕개량사업 등을 통해 아쉽게도 현대화된 가옥들로 변화되거나 개량되었다. 과거 우리군을 찾은 관람객이 ‘양구군의 옛집을 볼 수 있는곳을 추천해달라’는 문의를 받고 안내를 못해 드린 적이 있다. 따라서 옛날의 모습을 간직한 토속적인 건축물, 지형을 쉽게 개발하지 말고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방안을 강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긴다.



관광지의 오래된 건물관리 모습



오래된 건물과 전기시설의 이미지메이킹 모습



지하에 많은 유적이 있어
지반평면공사를 못하는 유적지



도로내에 보호된 유적지

IV. 총평

각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개발 육성하여야 하나 이미 인기있는 국내의 유명 관광시설을 벤치마킹 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특색없고 비스무레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힘들어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음에도 방문객이 없어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튀르키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로마와 비잔틴 문화, 오스만 제국의 유적까지 있어 최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테러와 전쟁의 영향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연간 5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경우 튀르키예의 관광산업을 모티브로 하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각종 테마여행을 우리군의 군사지역, 수변지역, 재정자립도, 인구감소등과 같은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우리군 대표 자원인 박수근, 국토의중심, 양구백토등을 적극활용하여 도입·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각종 체험과 볼거리를 만듬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시설조성에 집중되어 있다. 시설조성은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시설조성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여도 우리군보다 더 재정상황이 좋은 지자체나 기업에서 조성한 시설보다 더 크고 볼거리 많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시설조성 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더 토속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체험 및 볼거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종사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광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관광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원을 발굴 및 추진할 능력을 키워 우리군의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양구군’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